



7세기 초 신라왕권의 강화와 불교 원광과 자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The buddhist legitimation of Silla kingship - Focusing on the roles of monks
Wongwang andChajang in Silla politics -

저자 Pankaj Mohan, 송준혁
(Authors)

출처 [신라사학보 \(9\)](#), 2007.4, 47-80(34 pages)
(Source) [SILLASAHAKPO \(9\)](#), 2007.4, 47-80(34 pages)

발행처 [신라사학회](#)
(Publisher)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112>

APA Style Pankaj Mohan, 송준혁 (2007). 7세기 초 신라왕권의 강화와 불교. 신라사학보(9), 47-80

이용정보 삼성현역 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8/11 16:1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7세기 초 신라왕권의 강화와 불교

—원광과 자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Pankaj Mohan*

송준혁 譯**

I. 머리말	V. 자장과 신라정치
II. 정치적 배경	VI. 승관제의 체계화
III. 정치개혁	VII. 불교·유교 가치의 혼합
IV. 원광과 세속오계	VIII. 맺음말

* 호주 시드니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주요 논저 : “The Roles of Monks Won'gwang and Chajang in the Formation of Early Silla Buddhism” In *Korean Buddhism in Practice*,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 ; <6世紀 신라에서의 王權과 佛教間의 關係> 《불교학연구》 9, 2004 ; <7世紀中國和韓國의 王權與佛教間의 關係> 《鄧州航與中韓佛教交流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山東大學出版社, 2005 ; “Beyond the “Nation-protecting Paradigm: Recent Trends in the Historical Studies of Korean Buddhism”,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9, No.1, 2006 ; “Royal Authority and Legitimation in Late 4th-Early 5th Century Koguryo: Focusing on the Evidence of King Kwanggaeto's Stele” 《고구려연구》 21, 2005 등 다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통합과장

【국문초록】

원광과 자장은 불교와 왕권을 결합한 7세기 초반 신라를 대표하는 고승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원광의 세속오계와 자장이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에서 수행한 역할은 이것을 증명한다. 자장이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증거는 선덕왕을 크샤트리아로 신격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자장은 또한 신라를 불교왕국이자 과거불이 그의 신민들에게 영적인 위안을 주는 곳이자 그들에게 확신과 자긍심을 주는 곳으로 선언했다. 원광과 자장은 지배층에 요구된 유교윤리와 불교의 구원이라는 경계선을 거의 없앤 초기 신라불교의 대표자들이었다. 나아가 이들 두 승려가 종교적 문화적 관념과 기구들을 중국에서 선택적으로 수입해 그것들을 신라의 수요와 환경에 맞게 바꾸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주제어 : 자장, 원광, 왕실, 세속오계, 승관제, 황룡사구층탑, 불국토

I. 머리말

고대 삼국시대 불교의 구체적인 내용, 성격과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해진다. 왕실은 불교에 대해서 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불교는 轉輪聖王, 彌勒, 菩薩 등의 상징적 중요성을 왕실에게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왕실의 지위를 신성시하는 이념적 기틀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불교를 받아들인 후에 세워진 <廣開土王陵碑> · <모두루묘지> · <마운령비> 등은 왕의 지위를 신성화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광개토왕릉비>에는 주몽이 出生自有聖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모두루묘지>에는 고구려의 왕들을 聖王 내지 聖太王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

되어 있다. 6세기에 세워진 한 비에는 '聖王法興'이라고 법흥왕을 기술해 놓았다. 《三國遺事》에 기록된 설화에 따르면, 진흥왕은 전륜성왕 이념의 현현인 인도 아소카왕과 동일시하였으며, 6세기의 백제 통치자도 聖王이라고 불렸다. 그러한 신성화의 개념은 이전 시기의 비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고대 삼국의 승려들은 중국 제국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儒佛仙思想의 필요한 요소를 빌려 자기나라의 정치체제의 기반을 확고히 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고 문화를 융성케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圓光과 慈藏을 한국 초기불교사에서 사회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국민윤리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삼국 가운데 가장 후진국이었던 신라로 하여금 삼국을 통일케 한 정신적인 원동력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광법사와 자장율사가 살던 7세기 신라사회가 새로운 가치관과 실천 윤리를 필요로 했던 배경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윤리관으로서의 이 두 승려의 사상체계의 현실적인 의의를 이해토록 한다. 해당 시기의 여러 승려들 가운데 오직 이들만의 전기가 한국측 자료인 《三國遺事》·《해동고승전》과 중국 측 자료인 《속고승전》에 자세히 실린 사실도 그들이 그 당시 동아시아에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증명해 준다. 이 논문은 단순한 사상적 문제보다는 국가발전과 삼국통일의 실제적 측면을 중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신라 중고기의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이 두 승려의 사회, 정치적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정치적 배경 - 국내 모순과 대외 위기 -

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여 중앙 집권적인 고대국가체제를 성립하였다. 법흥왕대(539~576)는 兵部의 설치, 律令의 반포, 佛敎의 공인 등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고대국가의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사상적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진흥왕대는 신라의 영토 팽창 시기이었기 때문에 제국이념을 내포하는 전륜성왕 이념의 채택은 고구려 및 백제와의 항쟁에 정당성을 제시하는 한편 귀족세력을 견제하여 국민에게 왕위 위엄을 강조하는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진흥왕 다음 眞智王代에 왕실과 귀족세력 사이의 갈등이 다시 표출하였고, 그 밖의 다른 국내외적 위기와 함께 신라사회가 심한 혼란에 빠졌다.¹⁾ 진평왕의 즉위는 정치적 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지만, 여전히 왕권의 강화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귀족세력들이 존재했다. 귀족세력들의 반감은 이찬 柒宿과 아찬 石品の 음모에서 드러났다. 631년 음모는 발각됐고 칠숙의 가족과 함께 9족이 멸해졌다. 왕권과 귀족세력 사이의 갈등은 眞平王代 군부를 장악했던 金后稷의 전기에서 엿볼 수 있다.²⁾ 김후직은 거듭 왕에게 사냥을 자제하고 정사를 돌볼 것을 간언했다.³⁾ 신형식은 김후직이 왕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간언한 것이고, 이것을 왕권을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했으나⁴⁾ 이 당

-
- 1) 6~7세기 신라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다음 자료들은 큰 도움이 되었다. 이호영, 《신라의 삼국통합과정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85 ; 김영하, 《삼국시대 왕의 통치형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8.
 - 2) 《三國史記》 권45, 김후직전 ; 이명식, <신라 중고기의 왕권강화 과정> 《역사교육논집》 13·14합집, 1990, 327쪽.
 - 3) 《三國史記》 권45, 김후직전.

시 귀족들이 유교와 불교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날로 강화되어 가는 왕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⁵⁾ 신라의 골품제에 불만을 품고 중국으로 건너가 출세를 희망한 두 청년 大世와 九柒의⁶⁾ 예라던가, 647년 선덕여왕대에 일어난 毗曇의 난은 중국의 이념을 이용해 신라 왕실의 위엄을 약화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진평왕 이후 ‘聖骨男盡’ 때문에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다. 영향력 있는 진골출신자들이 이제는 왕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진평왕의 딸이었던 선덕여왕은 여성 聖骨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즉위하자 그에 대한 반감이 비담의 난으로 나타났다. 비담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2년 동안 上大等이었는데, 그는 ‘女主不能善理’를 구실로 삼아 반란의 깃발을 들고 선덕여왕을 몰아내려고 하였다.

16년 정미(647)는 선덕여왕 말년이고 진덕여왕 원년이다. 대신 毗曇과 廉宗이 여왕이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왕을 폐하려 하니, 왕은 스스로 왕궁 안에서 방어하였다. 비담 등은 明活城에 주둔하고 왕의 군대는 月城에 머물고 있었다.⁷⁾

정중환은 비담이 선덕여왕을 몰아내려고 함으로써 구신라귀족 세력의 이익을 대변했고, 그의 반란은 들로 양분된 신라귀족들의 상황을 나타냈다고 한다.⁸⁾ 金春秋, 金舒玄과 그의 아들 金庾信은 여왕을

4)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一潮閣, 1984, 156~157쪽 ; 박해현, <신라 진평왕대 정치세력의 추이-왕권강화와 관련하여-> 《전남사학》 2, 1988, 6~7쪽.

5) 이데올로기는 단지 엘리트들만의 시너가 아니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힘없는 이들에 의하여 지배계급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Henry J.M. Claessen과 Jarich G. Oosten, *Ideology and the Formation of Early States* 참조. op. cit., pp.362~365.

6) 《삼국사기》 권4, 眞平王 9년 7월조.

7)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지지하는 신귀족세력을 대표했다. 구세력의 무력함은 그들이 당시 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구실에도 불구하고, 신귀족세력들은 또 한 명의 여왕을 옹립하는데 성공했다. 양분된 귀족세력과 그들 사이의 치열한 정권쟁탈전이라는 정중환의 논지는 옳지만, 다른 역사학자들은 당 태종도 선덕여왕의 통치능력에 대해 의문을 가짐으로써 선덕여왕에 대한 반감을 부채질했다고 주장한다. 이보다 몇 년 전에 당 태종은 신라가 외침의 위협에 시달리는 이유는 힘없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⁹⁾

이들 세 국왕들의 치세기간은 고구려와 백제와의 치열한 갈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더욱 강화된 백제와 왜 사이의 연맹과 고구려와 왜 사이의 연맹은 신라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수나라에 의한 중국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에서의 변화의 영향이 한반도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고구려는 자신의 정치, 외교적 접촉을 다양화하기 시작해서 왜에 승려와 기술자들을 파견했다. 왜는 답례로 신라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¹⁰⁾ 《일본서기》에 의하면, 591년에 왜는九州 북부인 博多에 20,000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곳에 4년 동안 머물렀다고 한다. 또 《일본서기》에 의하면 600년에도 신라에 군사를 파견하여 6개의 신라의 성을 차지했다고 한다. 최근 어떤 학자는 《일본서기》의 편향성에도 불구하고, 위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¹¹⁾ 왜가 고구려와의 우호를 강화하기 위해

8) 정중환, <비담염중난의 원인과> 《동아논총》 14, 1977, 26~27쪽.

9) 주보돈, <신라 중고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23, 1979, 209~211쪽.

10) Joseph Wong(Huang, Yueh-se), “The Korean Wars and East Asia in the Seventh Century”,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호주국립대학교, Canberra, 1984, pp.24~28.

11) Pan Yihong, *Son of Heaven and Heavenly Qaghan: Sui-Tang China and its Neighbors*,

신라에 병선을 파견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 기간 동안(진평왕,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재위 기간)에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에 대해 더욱 강화된 군사침략을 감행했다. 6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신라와 고구려는 국경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603년부터 고구려는 새로이 신라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608년에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 더욱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8,000명의 신라인들을 죽이고 한 개의 성을 차지했다. 선덕여왕 7년(638)에 신라는 다시 한 번 고구려의 침략을 받았다. 《삼국사기》는 대체로 신라를 고구려 침략의 피해자로 묘사하지만, 629년의 전투는 신라에 의해 시작된 것 같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는 낭비성을 잃고 5,000명의 군사가 전사했다.

진흥왕대에 신라와 치룬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백제는 반세기 동안 신라 국경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러나 7세기가 되자 다시 적개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611년과 618년에 신라와 작은 규모의 전투를 가졌다. 이후 신라와 백제 사이의 전투는 624년, 626년, 627년, 633년, 636년과 642년에 벌여졌는데 신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643년부터 전세가 바뀌어 김유신 장군이 7개의 백제 성을 차지했다.¹²⁾ 이후 663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신라와 백제는 서로 산발적인 전투를 하였다.

Ⅲ. 정치개혁

이 시기의 국왕들은 국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의 이념

Bellingham: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1997, p.124.

12) 《삼국사기》 권41, 김유신전.

과 정체제도를 수입하고 군사조직을 재정비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 문물제도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그에 비례하는 귀족세력의 약화에 대비했다.¹³⁾ 신라는 또한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가야와 한강유역의 새로운 인구, 영토, 자원의 편입으로 인한 사회계층 분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선진적인 정치제도가 필요했다.

재위 원년에 진평왕은 권력다툼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귀족세력의 대표인 弩里夫를 상대등에 임명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는 또한 조정에서의 경쟁자들을 회유하려고 하였는데, 그들은 폐위된 진지왕의 지지자들이었다. 진평왕은 그의 사촌인 龍樹(진지왕의 아들)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새로 창설된 內省의 장관으로 삼았다.¹⁴⁾ 진흥왕의 직계자손들 사이의 연합은 조정에서 진평왕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였고 귀족들의 도전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였다. 진평왕은 또한 차등 있고 정교한 중앙관서 조직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권력과 권위를 분할하는 목적은 권력남용의 가능성과 국가전복의 야망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었다. 진평왕은 또한 位和府(인사담당 부서), 船府 같은 중요 부서를 창설했고, 兵部와 摺幢의 大監과 弟監을 임명했다.

그의 후계자들이었던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그의 정치개혁을 계승했다. 선덕여왕은 지방 귀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릉에 北小京을 설치했다.¹⁵⁾ 선덕여왕은 관료들의 복식을 당 나라 식으로 바꾸자는 자장의 의견을 승인했다. 진덕여왕의 재위 기간에도 행정적 개혁은 계속됐다. 품주는 여왕의 직속 자문기구인 執事部로 재조직됐는데,

13) 7~8세기 일본의 지도자들도 중국의 정치이념과 제도들을 수입했다. Peter Dus, *Feudalism in Japan*, New York: McGraw-Hill, 1969, pp.20~33 참조.

14) 內省은 일종의 왕실 비서기구이고 그 관할하에 왕의 조언자들과 측근들을 두었다.

15) 《삼국사기》 권5, 선덕여왕 8년.

이것은 강화된 왕권을 반영했다. 집사부의 長인 中侍라는 관직이 창설됐는데, 대부분 왕족 가운데서 선출됐다.¹⁶⁾ 진덕여왕의 재위 기간에 그 밖에 조세를 담당하는 倉部와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理方府를 창설했다. 진평왕과 그를 이은 세 명의 왕들 또한 당나라와 밀접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했다.

국가 강제력의 강화와 관료기구는 중앙 집권 국가의 필수 요소이나, 이것들 자체만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는 부족하다. 지배계급은 공통된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와 세습권력을 정당화하고, 국가의 주요자원에 대한 접근과 차단을 관장해야 한다. 공통된 이데올로기와 신념체계는 지배 엘리트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권위를 정당화 한다.¹⁷⁾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 시기의 지배자들은 부처님과 그의 일족을 자신과 동일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토착적인 신앙과도 관련시켰는데, 이것은 모든 신앙체계를 동원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계속된 불교 승려들에 대한 후원은 세속적인 측면이 있었다. 중국 학문에 능통한 불교 승려들은 국가에 비전과 지도력을 제공했고, 그들의 중국에서 체험은 수나라, 당나라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하는데 이용되었다.

IV. 원광과 세속오계

원광은 6세기 말에 중국으로 건너가 그의 덕행, 신통력과 학문으로 인해서 높은 명성을 얻어 신라국왕이 수나라 황제에게 원광을 귀국시

16) 이기백,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149~174쪽.

17) David Beetham, *The Legitimation of Power*,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91, pp.69~70.

켜 달라고 여러 번 탄원서를 보낼 정도였다. 수 문제는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그가 귀국하는 것을 허락했다. 원광은 귀국 후에도 승직 생활을 계속했으나, 그에게 모든 중요한 보고서, 상소문과 서신,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사료에는 “그의 책무는 비록 비단 관복을 입은 관리의 것이 아니었으나, 그가 관료와 같이 나라를 돌보아 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한다.¹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혼란과 불확실의 시대였고 신라는 더욱 호전적인 고구려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진평왕은 원광에게 고구려를 평정할 군사원조를 隋 文帝에게 요청하도록 하였다(원광이 중국에 체류할 때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원광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승려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천한 제가 대왕의 영토에 살면서, 대왕의 水草를 먹으니,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¹⁹⁾라고 했다.

원광의 위의 말은 대체로 신라 초기의 護國佛教의 증거로 간주된다. 그러나 위 문장을 국가가 불교를 길들이고 불교교단의 인적, 물적 자원을 차지하여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원광은 불교의 규범을 다시 정의한 것은 아니다. 그는 왕명이 불교교리를 위반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복위, 수나라와 당나라의 승려들처럼 세속적 권력에 복종했고 왕권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허락했다.

원광이 화랑에게 준 世俗五戒는 불교의 세속적 권력에의 예속을 나타낸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원광은 귀산과 추항(사랑부 출신)이

18) Pankaj Mohan, "The Roles of Monks Won'gwang and Chajang in the Formation of Early Silla Buddhism" In *Korean Buddhism in Practice*,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19)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0년 ; 이기백, <원광과 그의 사상>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일조각, 1978, 103~120쪽.

라는 두 명의 청년에게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그리고 殺生有擇이라고 하는 화랑제도의 기본적인 정신을 전수하였다.²⁰⁾

불교학자와 유교학자들이 각각 불교와 유교의 입장에서 세속오계를 해석하여 자기의 논지를 전개했다. 그러나 원광법사를 어느 특정한 종교에 국한 시키지 않고 그를 7세기 초 신라의 최고 지식인으로 생각하여 그의 가르침도 그러한 입장에서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안계현, 이기영과 정병조와 같은 불교학자들은 세속오계의 성격은 주로 불교적이고, 불경에 언급된 국가에 대한 충성, 효도와 신뢰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였다.²¹⁾ 다른 학자들은 세속오계의 유교적 기원을 주장했다.²²⁾ 이들 후자의 학자들은 원광이 유교적 학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오계를 유교의 五倫을 본보기로 하여 지었다고 주장한다. 세속오계를 불교적이다 또는 유교적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부적합하고 불필요하다.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간의 믿음과 국가에 대한 충성은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더구나 이 가치들은 신라가 정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중국문명의 핵심이었고, 이 가치들은 새로 수립된 중앙집권적인 왕권의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이었다. 마지막 두 계율인 살생유택과 임전무퇴는, 한참 정복전쟁의 와중에 있던 신라의 현실적 필요와 부합됐다.

김충렬은 전쟁터에서의 신라 군사들의 용맹을 직접적으로 원광의 세속오계와 연관지었다. 그는 역사자료에서 많은 구절을 인용해서 A.D

20) 《삼국사기》 권45, 귀산전.

21) 안계현, <신라인의 세1계와 국가관－신라문화의 특징 이해를 위한 서설> 《한국사상》 3, 1960, 81~97쪽 ; 정병조, <원광의 보살계 사상> 《한국고대사에 있어서의 인간과 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이기영, <신라 불교의 철학적 전개> 《한국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1982, 226~227쪽.

22) 이병도, 《한국사대관》, 보문각, 1955, 110쪽.

600년 이전에 고구려가 신라를 침략하면 신라 군사들이 자주 후퇴했었는데, 원광이 세속오계를 정한 다음에는 신라 군사들이 후퇴한 예가 없다는 것이다.²³⁾ 원광이 이와 같은 경향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그것보다는 세속오계는 중국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던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의 숫자 ‘5’의 선택은 의도적이었는데, 유교의 五倫, 五行과 五帝의 영향을 받아, 원광은 신라의 전통과 사정에 맞도록 오계의 내용과 순서를 바꾸었다.

김철준은 유교의 五倫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친구 사이의 믿음이 원광의 세속오계에서는 세 번째 항목이 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했었다. 그것은 청소년 사이의 친목이 전쟁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²⁴⁾ 부연하면 세속오계의 근본적인 정신이 청년동료 간에 생사를 같이 하는 盟友精神과 公共精神으로서의 강한 국가정신을 고취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忠信을 근간으로 하는 화랑도 정신은 삼국 중 제일 낙후한 신라의 운명을 바꾸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V. 자장과 신라정치

원광법사와 더불어 7세기 신라의 정신세계를 주도한 승려였던 자장은 한국불교에 있어서 ‘호국불교’의 구현자로 간주된다. 최근 Robert Buswell, Jr. John Jorgensen, 김종명 등 여러 학자들은 호국불교라고 하는 개념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²⁵⁾

23) 김충렬, <화랑오계의 사상배경고> 《아세아연구》 14-4, 1971.

24) 김철준, <민족사의 교훈> 《한국문화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440~441쪽.

신라 왕실 출신으로 알려진 자장은 7년 동안 중국에서 머문 뒤에, 643년에 선덕여왕의 요청에 따라 귀국하고, 국가의 종교적, 세속적 일 모두에 관여했다. 그는 선덕여왕에게 황룡사에 9층목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一然은 지금은 일실된 《동도성립기》라는 책을 인용하여 목탑의 각 층이 중국과 일본²⁶⁾을 비롯한 주변국가를 상징하며 탑이 신라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13세기 당시 몽고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던 일연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과거로 투영한 것일 수도 있다. 거의 당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황룡사구층목탑찰주본기>(이하 탑기)에서는 신라의 정복야망을 좀더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南山圓香禪師가 자장에게 말하기를, “만약 당신 나라의 황룡사에 구층목탑을 세운다면 해동 전체가 신라에 복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자장은 귀국하여, 이찬 용수의 감독하에 백제의工人 阿非知와 200명의 기술자들에게 명령하여 탑을 짓게 하였다.²⁷⁾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일연의 구층목탑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김종명이 말한 《삼국유사》와 <탑기>의 여러 요소들이 가짜이고 후대의 가필이라는 주장은 옳다고 본다. 김종명이 제기한 異議는 타당하며, 자장이 단순히 당대 신라 지배자에게 구층목탑을 건설하라

25) 자장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안계현, <자장의 불교 사상> 《한국불교사상사연구》 동화출판공사, 1982 ; 신종원, <자장과 중고시대 사회의 사상적 과제>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 치국책> 《한국사연구》 76, 1992 ; 김종명, "Buddhist Rituals in Medieval Korea(918-1392): Their Ideological Background and Historical Mean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4 ; 김상현, <자장의 정치외교적 역할과 자장 정율의 내용과 의의>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297~301쪽.

26) 《삼국유사》 권3, 황룡사구층탑.

27) 황수영, <황룡사찰주본기> 《황수영전집》 5, 해안, 1997, 168~175쪽.

고 건의했다고 해서 자장을 호국불교의 주창자로 볼 수 없다는 김종명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김종명의 일부 논의는 동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김종명은 圓香禪師가 자장에게 황룡사에 구층목탑을 세우라고 건의했다는 것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의심한다.

“중국 승려가 신라의 보호를 위해 자장에게 구층목탑을 세우라고 건의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²⁸⁾ 중국 승려가 탑을 세우라고 건의한 것은 신라로 봐서는 불법의 진진일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거대한 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실에 호소하기 위해 그의 말을 과장했을 것이다. 외국 승려들이 중국 황제에게 거대하고 화려한 사원과 탑을 지을 것을 건의한 예는 많으며, 그들은 황제의 지지와 동의를 얻기 위하여 ‘국가수호’라는 수사를 사용했다. 당나라 대종에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문수보살전”을 지을 것을 건의한 不空金剛(Amoghavajra)을 예로 들 수 있다.

Raoul Birnbaum은 不空金剛이 문수보살을 위한 거대한 사원의 건립을 장안과 오대산에서 추진한 것과 그의 거둬진 불교의 호국성의 언급은, 황제의 도움을 얻어서 중국에서 불교를 강화하려는 그의 궁극적인 목적 때문이었다²⁹⁾고 한다. 예배장소는 조직화된 종교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金나라 장종(1190~1208)이 지적했듯이, 중국의 불교와 도교 사원들은 (유교 사원에 비교하여) 화려하고 찬란했는데, 이것은 불교와 도교 승려들이 잠재적 후원자들을 자극하여 그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다.³⁰⁾

28) 김종명, “Chajang and 'Buddhism as a Protector of the Nation': A Reconsideration”, *Religions in Traditional Korea*, edited by Henrik H. Sorensen, Copenhagen: The Seminar for Buddhist Studies, 1995, p.50.

29) Raoul Birnbaum, *Studies on the Mysteries of Manjusri: A Group of East Asian Mandalas and their Traditional Symbolism*,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Monograph, no. 2, p.37.

김종명은 또한 자장이 신라의 복식제도의 변화에 공헌했다는 것을 의심한다. 그는 김춘추(뒤에 무열왕이 됨)가 신라의 복식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꾸었다는 《삼국사기》의 기사가 더 믿을 만하다고 주장한다. 《삼국사기》의 관련 기사는 중국 측 자료 《구당서》, 《신당서》와 《자치통감》의 기사와 합치되는데, 648년에 김춘추가 당 태종을 알현해서 신라의 복식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자, 당 태종은 궁궐에서 귀한 옷을 꺼내 와서 하사했다고 한다.³¹⁾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삼국사기》의 편찬은 김부식의 유교적 가치에 의해 특징지어졌으며, 그에 의한 불교 자료들의 누락은 초기 국가형성에 있어서의 불교의 역할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점은 7세기 신라 정치사에 있어서 자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은 그에 대해 단지 세 가지 일, 그것도 중국에 관한 일만 기록했다. 선덕여왕 5년에 중국으로 건너간 것, 12년에 귀국한 것과 그의 건의에 의해 황룡사 구층탑이 세워진 것만 기록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가 비록 공식 기록이기는 하나, 불교와 관련되는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엄정한 사료비판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우선 《속고승전》(일연이 인정한 기록이고 자주 인용한 기록이다)이 신라 제도가 중국화하는데 있어서 자장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자.

중국과 오랑캐들 사이에는 풍속과 의복의 차이가 있다. 자장은 오직 참된 전통만 숭상했다. 그의 충성심을 의심할 수 있는가? 자장의 의견이 조정에서 논의된 다음에, 신라는 의복제도를 바꾸고 당 나라를 모범으로 삼았다.³²⁾

30) 金書 10/8a/1/132 ; Liu Tsun-Yan, *New Excursions from the Hall of Harmonious Wind*, Leiden: E.J. Brill, 1984, p.4에서 재인용.

31) 《삼국사기》 권5, 진덕왕 2년 및 권33 잡지2 참조. 《신당서》 10, 권 220 ‘東夷傳, 新羅條’.

32) 《속고승전》 24, 大正 50.

중국측 자료에 의해 보충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사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불교측 기록은 자장이 중국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라의 사상과 정치제도를 중국의 것들과 동일하게 고쳐야 한다고 건의했고,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졌다고 전한다.

그러나 신라는 올바른 외교적 경로를 거친 탄원서를 당나라 황제에게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절차를 따라야만 하였다. 신라 조정은 ‘외교적 인재’로 알려진 김춘추를 보내기로 하였다.³³⁾ 자장은 단지 신라 정신계의 우두머리였고 김춘추는 정치와 외교 세계의 중추적인 인물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신라의 전통과 제도를 중국화시키는데 있어서 그의 역할은 자장을 훨씬 능가한다. 이런 면에서의 김춘추의 중요성은 고구려 승려 도현이 지은 《日本世紀》라는 기록에도 나타난다. 지금은 비록 일실되었지만, 해당 기록이 《일본서기》에 남아있다.³⁴⁾

자장은 또한 내외외환의 시대에 불교적 상징을 동원하여 선덕여왕을 부처와 연결시켰는데, 여왕의 신성함과 존엄을 강조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 선덕여왕은 한국 역사상 첫 여성 군주였는데, 그를 ‘刹帝利’(ksatriya, 즉 君子, 土田主, 무사계급)로 선언하여, 여왕을 부처의 출신계급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것은 여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을 정당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초기불교의 국가관은 국가계약설 이념에 기반을 둔 것인데, 이러한 대중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군주, 즉 mahasammata(큰 합의로 선출된 왕)도 ‘刹帝利’라고 불리며, 브라만교 측 자료들과는 달리, 불교경전에서는 ‘刹帝利’가 카스트

33) John Jamieson, 앞의 논문, 38쪽.

34) 《일본서기》 2-26. 기록의 원 의미는 신라의 김춘추가 중국에 외교사신으로 가서, 전통 의복을 버리고, 이웃 나라인 고구려를 침략해 달라고 간청했다는 내용이다. 원문을 보려면, 井上光貞監譯, 《日本書紀》, 東京, 中央公論社, 1987, 256쪽.

위계에서 최상의 지위를 차지한다.³⁵⁾ 또한 브라만교 경전에서는 ‘刹帝利’ 계급이 유일하게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계급으로 묘사되어서, 인도의 많은 고대와 중세 지배자들이 족보를 위조하여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刹帝利’ 계급 신분을 부여했다.³⁶⁾

자장은 신라가 佛國土이며 과거 부처들의 거처라고 선언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자장이 중국의 오대산에 도착했을 때, 문수보살의 출현을 경험했는데 문수보살은 그에게 신라의 황룡사는 과거 석가모니 부처와 迦攝佛(kyapa, 迦攝波, 迦葉波으로도 표기됨)이 설교했던 자리라고 알려주었다. 문수보살은 그 증거로 당시 남아있던 석가모니와 迦攝佛이 앉았다고 전해지는 돌을 가리켰다.³⁷⁾ 자장이 신라를 불국토라는 이상화된 개념으로 간주한 것은 불교의 역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유형과 잘 합치된다. 불교사회는 자신들의 영토가 부처와 보살들과 속세에 인연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신화-역사적인(myth-historical)” 과거에 호소해서 당대의 성역화사업을 정당화했다.³⁸⁾ 과거불의 전설은 국가의 보호물인 황룡사의 위상을 높여 ‘고고

35) 《장야함경》 1. 97-107, II. 85.

36) H. Kulke, "Ksatriyaisation and Social Change: A Study in Orissa Setting", *Aspects of Changing India: Studies on Honour of Professor G. S. Ghurye*, edited by S. D. Pillai, Bombay: Popular Prakashan, 1976 ; S. Sinha, "State-Formation and Rajput Myth in Tribal Central India", *Man in India*, 42-1, 1962. 또한 H. L. Seneviratne, *Rituals of the Kandyian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Sinhalese 역사에 있어서 Kandyian 왕권(1500~1800)을 언급하면서, Seneviratne(9쪽)는 무사계급은 왕실에 한정되었으며, 왕이 무사계급임을 주장하여 무사계급 왕권의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한다.

37) 《삼국유사》 권4, 탑상, 황룡사 장육.

38) Herbert Durt는 초기 신라 불교의 이러한 “가짜 예언”들을 그의 "The Meaning of Archaeology in Ancient Buddhism-Notes on Stupas of Asoka and the Worship of the "Buddhas of the Past" According to Three Stories in the Samguk Yusa" 《불교와 제과학: 동국대학교개교 60기념 논총》, 1987에서 논의했다.

학적인 성지'로 만들고, 백제와 고구려에 상대하여 신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용되었다. 이것은 오랜 전쟁으로 지친 신라인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제공했을 것이다.³⁹⁾ 과거 七佛(sapta-tathgata) 중 하나인 迦攝佛을 황룡사의 보호자로 삼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迦攝佛은 과거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초기 불교 경전에서 자주 언급되며, 중아함경(Ghatikara sutta Majjhima nikya)에 의하면 석가모니가 전생에 조티팔라라는 브라만으로 탄생하여 절을 지을 때 迦攝佛의 설교를 듣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⁴⁰⁾

《삼국유사》 자장전에 보이는 문수보살, 迦攝과 석가모니의 등장은 그 원형을 오대산과 관련된 여러 전설에서 찾을 수 있다. Raoul Birnbaum은 5세기 말 오대산(淸涼山이라고도 한다)에 지방 불교 결사가 세워졌고, 6세기 중반이 되면, 문수보살이 나타난다는 성스러운 장소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⁴¹⁾고 한다. 7세기로 편년되는 여러 문헌들은 이

39) 김영미는 자장의 과거에의 호소의 목적은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어, 신라인들이 부처와 보살이 거처하는 자신의 영토가 극락정토나 미륵의 극락세계와 동일하다고 믿게 하는 데에 있었다고 한다(김영미, <자장의 불국토 사상> 《한국사시민강좌》 10, 1992, 1~2쪽).

40) Richard Gombrich, "The Significance of Former Buddhas in the Theravadin Tradition", *Buddhist Studies in Honour of Walpola Rabula*, edited by Somaratna Balasooriya et al., London: Gordon Fraser, 1980, pp.66~68.

41) Raoul Birnbaum, "Secret Halls of the Mountain Lords: The Caves of Wu-t'ai Shan", *Cahiers d'Extreme-Asie* 5, 1989-1990, p.117. 문수보살과 청량산(중국의 오대산이 아니라, 인도에 있다고 한다)과의 관계에 대한 이른 언급은 408년-429년 사이에 완성된 Buddhahadra의 60장 《화엄경》 번역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늦은 저작들은 이 관련을 더욱 명백하고 분명하게 한다. 정병조, 《문수보살의 연구》, 한국불교연구원, 1989, 141쪽 ; Robert E. Gimello, "Chang Shang-ying on Wu-t'ai Shan", *Pilgrims and Sacred Sites in China*, edited by Susan Naquin and Chun-fang Yu,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100.

산의 여러 동굴을 과거 부처들의 자리로 설정해서, 신비스러운 역사를 먼 고대로 소급시키고자 하였다. 慧香의 《古清凉傳(679년경)》에 의하면,

오대산의 금강 동굴은 3대의 부처에 대한 모든 예배 공물을 저장하는 곳이다.

… 迦攝佛 소멸 뒤에, 문수보살은 청량산의 금강 동굴로 들어갈 것이다. 더구나 그곳에는 銀箜篒가 있고, 은의 천상계 인물이 있는데, 일곱 가지 귀중한 물건으로 만든 꽃에 앉아서 공후를 연주하고 있다. 또한 금종이와 은종이에 쓰여진 迦攝佛의 계율이 있다. 부처의 소멸 뒤에, 문수보살은 청량산의 금강 동굴로 들어갈 것이다.⁴²⁾

Raoul Birnbaum은 오대산을 과거와 현재 부처와 연관시키려는 여러 예를 제시하고 있다. 667년에 지어진 도선의 祇園圖는 祇哆槃那(jetavana)에서 연주되는 천상계의 음악을 “처음 迦攝佛 부처를 위해 楞伽山の 羅刹王에 의해 지어졌으며”, “맑고 시원하다(清凉, 오대산의 다른 이름)”고 했다. 이 문헌은 또한 迦攝佛의 열반 뒤에, 문수보살은 청량산으로 들어가서, 석가모니가 祇哆槃那를 방문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그는 祇哆槃那에서 석가모니와 합류할 것이지만, 석가모니가 열반하면 문수보살은 청량산의 금강동굴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1097년에 延一이 쓴 《廣清凉傳》에서는 오대산의 남북 산등성이 사이에 옛 현인들이 출입구로 사용하였던 돌관문이 있다고 한다.⁴³⁾

김종명은 자장과 문수보살의 관계 및 신라의 역사와 지리를 성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고친 《삼국유사》 기사를 순전히 일연이 지어낸

42) T. 2098: 51, 1094c-1096a, Raoul Birnbaum에서 인용.

43) Raoul Birnbaum, 1989~1990, pp.125~127 ; 또한 그의 "Thoughts on T'ang Buddhist Mountain Traditions and Their Context", *T'ang Studies* 2, 1984, pp.16~19에서 오대산에 관한 전통적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허구라고 생각한다. 김종명은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道宣의 《속고승전》에 자장과 문수보살과의 관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주장한다.⁴⁴⁾ 그러나 일연이 《옥룡집》에 수록된 <자장전>과 《제가전기》 등 현존하지 않는 지방 사료들로부터 자장에 대한 전설을 모아서, 그가 오대산에 대한 여러 중국 측 기록들을 읽으면서 얻은 분위기와 영감을 자장의 그것에 덧붙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 논문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측 기록들과 비교하여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한국 측의 고유 기록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삼국유사》의 여러 기록들로부터 신라가 토착신앙, 즉 무교가 차지하는 영역과 장소를 불교식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전설들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무교에서 성스러운 장소라고 여겨지던 天鏡林에 홍륜사를 세운 것과, 黃龍이 나타난 곳에 황룡사를 세운 것은 불교가 신라의 고유 신앙인 무교의 성스러운 영역을 재정의하고자 했던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와 불교 신격 사이의 신화역사적인 연결은 불교의 영역 지배 주장을 정당화하고 경쟁자로 간주되었던 무교들로부터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정신적 지도력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했다.⁴⁵⁾ 모든 불교 사회에서 비슷한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아소카왕의 탑의 흔적이나 과거 부처와 관련된 물건에 성스러운 명문이 있다는 등, 불교가 자신의 존재를 먼 고대로 소급시켜 증거를 ‘날조’하는 경우가 여럿 있다. 일연이

44) 김종명, 1995, 52~53쪽.

45) Raoul Birnbaum은 오대산에 있어서의 불교 신전 설립의 비슷한 과정을 그의 논문, "The Manifestation of a Monastery: Shen-ying's Experiences on Mount Wu-t'ai in Tang Context",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6, 1986, pp.124~127과 "Secret Halls of the Mountain Lords: The Caves of Wu-t'ai Shan", pp.115~140에서 논의했다.

중국측 자료로부터 몇 가지 요소를 빌려와서 자장의 전기에 덧붙였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전체 전설을 일연의 상상으로 치부하여 무시해버리는 것도 지나친 것 같다. 다른 불교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7세기의 신라 불교도 영토를 성스러운 불국토로 지목하고, 불교를 신라인들의 고래의 신앙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현명하고 機知가 충분히 있었다.

VI. 승관제의 체계화

자장의 또 다른 중요한 공헌은 국가의 지도하에 승단조직을 체계화한 것이었다. 그는 아마도 四分律을 근거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불교교단 규칙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삼국유사》와 《속고승전》에서의 관련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왕실은 비록 불교가 전해진 시기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아직도 불교교단을 제어할 법과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도적인 원리 없이는 교단의 질서와 순수함을 유지하기가 힘들니, 여왕은 조서를 내려서 자장을 대국통으로 임명했다.⁴⁶⁾

불교가 신라에 전해진 시기가 정확히 한 세기가 되었으나, 승려들의 도덕적 수양과 계율 지킴이 부족하여 자장은 장관 및 원로들과 규율을 바로잡는 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 때에 왕과 장관들,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의논했다. 불교교단은 규율을 필요로 하였고, 대국통인 자장에게 이 일을 위임했다. 자장은 불교교단의 다섯 분과⁴⁷⁾ 모두에게 四分律의 옛 해석에

46) 《삼국유사》 5, 자장.

더욱 충실하라고 명령했다.⁴⁸⁾ 그는 교단의 계율 엄수를 감독하고 유지하는 행정적인 장치를 수립했다.⁴⁹⁾

진흥왕대에 처음으로 승관제가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금석문 자료로부터 입증된다. 예를 들면 대구의 무술오작비(578)는 사원의 상위 관리자인 도유나를 언급하고 있다.⁵⁰⁾ 사원 및 승려 인구의 증가와 가장 당시인 7세기 중엽에 있어서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는 기존 교단구조를 재조직하고 더욱 긴밀하게 국가의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했다.

분열되고 무질서한 불교교단은 국가의 불안정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상이한 종교 교파가 조정에서 경쟁 정치 파벌과 연합하여 상호의 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중앙집권적인 국가들은 자기 영토 내의 성직사회에 대해서 직접 지배권을 행사했다. 아소카왕이 불교교단 내부에 분열을 일삼는 어떠한 승려나 비구니에 대해서도 성직 박탈을 시키겠다는 위협을 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⁵¹⁾ 아소카왕과 같이, 소승불교권의 군주들도 불교교

47) 비구, 비구니, 남성 초심자(sramanera), 여성 초심자(sramanerika)와 여성 성직 지망자(siksamana).

48) 《속고승전》의 “舊習”과 《삼국유사》의 “舊學”이 옛 학문을 나타내지만, 여기에서 法礪의 四分律疏(舊疏)의 뜻으로 사용된 것 같다.

49) 《속고승전》. 일본에 있어서의 757년에 제정된 Soni ryo(승려와 수녀의 법) 아래의 Sogo(교단 감독자)의 자격은 자장의 그것과 비슷하다. “교단 감독자의 직책은 반드시 백성들을 현명하게 지도할 수 있는 덕망 높은 사람이어야 한다. 성직자와 신도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며 교단 관리에 능숙해야 한다”. Kyoko Motomochi Nakamura, *Miraculous Stories from the Japanese Buddhist Tradition: The Nihon ryōiki of the Monk Kyōkai*,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20.

50) 황수영, 《한국금석유문》, 42~43쪽.

51) 아소카왕의 칙령에 의하면, 교단의 분열 뒤에 다시 화합과 조화가 회복되었는데, 앞으로 분열을 일삼는 자가 있으면 환속당할 것이라고 했다. K. R. Norman, "Asoka's "Schism" Edict", 佛敎學セミナ 46, 1987, p.28을 보라.

단의 정신적인 힘과 잠재적인 역량을 알고 있어서, 불운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왕권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였다.

중세 스리랑카의 왕들은 때때로 “규정에 의한 정화”나 다른 개혁 조치들로 불교교단에 대해서 통제를 가했다. 불교교단의 일원들에게 공훈의 대가로 작위나 지위를 수여하거나, 세속 관료로 임명하여 중요한 종교적인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불교교단을 왕권의 통제하에 두는 방법이었다.⁵²⁾ 태국의 경우에는 佛圈과 王圈 사이의 이론적인 구별이 국가의 교단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모호했는데, 승관직 수여의 후원(불교교단에 수양이 높은 승려들을 투입시키기 위하여)과 교단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부서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⁵³⁾ 政敎 사이의 모호한 구분은 Jean Baptiste Pallegoix 주교에서 잘 보이는데, 그가 1854년 Siam에 대해 쓴 책에는, “승려 집단의 선행 여부를 감시하라고 임금이 임명한 왕자의 권위에 그들은 복종한다”라고 썼다.⁵⁴⁾

동아시아에서 국가-교단 관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정부는 종교 체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정교한 제도를 창설했다. Arthur Wright 교수가 지적했듯이, 당나라 황제들은 불교교단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억제했다.⁵⁵⁾

52) R. A. L. Gunawardana, *Robe and Plough: Monasticism and Economic Interest in Early Medieval Sri Lanka*,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79, pp.170 ~ 211.

53) Craig Reynolds, "The Buddhist Monkhood in Nineteenth Century Thailand".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Cornell University, 1972, p.19. 또한 Stanley Tambiah의 *World Conqueror and World Renouncer*는 19세기에 있어서 왕권의 중앙집권화에 따라 불교교단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고 한다.

54) Jean Baptiste Pallegoix, *Description du Royaume Thai ou Siam*(Paris, 1854), 2권 p.29 ; Craig Reynolds, "The Buddhist Monkhood in Nineteenth Century Thailand",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Cornell University, 1972, p.19에서 인용.

특히 평신도들과 관련된 불교교단의 활동들은 정부의 더욱 강화된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모든 승려와 여승들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새로이 등록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승려들의 등록 서류 사본들이 각각 지방 시당국, 현청과 중앙정부의 禮部에 보관됐다.⁵⁶⁾

자장은 최고 성직자의 자격으로, 불교교단의 규칙 엄수를 감독할 새로운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는 보름달이나 초승달일 때 2주간 열리는 增長(布薩)집회에서 禁戒를 암송하고 계율의 위반사항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였다. 자장은 또한 봄과 겨울 일년에 두 번, 포괄적인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계율을 지킨 자와 지키지 못한 자를 찾아냈다. 전국의 모든 사원을 순행하여 법계에 어긋난 승려들을 훈계하고, 불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佛像을 제대로 보존하고, 불교교단의 업무를 관리할 감독관들이 임명되었다. 《속고승전》은 “자장 덕분에 계율이 일상사가 되었다”고 했다. 당시 사람들은 ‘자장이 과연 불법을 보호하는 보살’이라고 생각했다.⁵⁷⁾

여러 학자들은 비록 현존 사료에 자장이 신라에서 집행한 계율이 어떤 계통의 계율이었는지 명기되지 않았지만, 四分律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계통의 계율은, 아마도 B.C. 2세기경에 化地部(mahī-sāsaka)로부터 분리되어, 四分律로 확립된 것 같다. 이 학파는 佛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교교단과 부처 사이에 명확하고 분명한 구별을 두었다. “불교교단은 부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에 대한 선물은 교단에 대한 선물보다 값어치가 더 나아간다고 가르쳤다.⁵⁸⁾ 이 문헌을 중국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255년경에 曇誦에

55) Arthur Wright, *Buddhism in Chinese History*, p.67.

56) 《신당서》 2. 또한 Tso Sze-bong, "The Transformation of Buddhist Vinaya in China", 미간행 박사 학위 논문,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1982. p.274.

57) 《속고승전》.

의해서 처음 시도되었다. 그러나 번역의 완성은 410년에 중국에 온 카스미르 지방의 승려 佛陀耶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는 외우고 있던 전체 문헌을 암송했고, 佛念은 산스크리트 원어를 중국어로 번역했다. 20년 뒤에 求那跋摩는 비구니들을 위한 “四分比丘尼戒本”의 중국어 번역본을 마무리 지었다.⁵⁹⁾

四分律은 점차 중국교단 생활의 귀감이 되었으며 불교교단의 모든 의식이 四分律羯磨疏에 따라서 거행되었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四分律의 기반은 확고해졌지만, 내분이 일어나서 옛 주석을 따르는 法礪의 四分律疏(舊疏)과와 새로운 주석을 따르는 懷素의 四分律疏(新疏)과의 두 과가 생겨났다. 도선은 옛 주석과를 따랐으며, 四分律이 불교계에서 보편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도선은 636년에 동아시아 불교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질 四分律에 대해서 자신의 주석서를 썼다. 도선이 종남산에서 주석서를 썼기 때문에 南山抄라고 불렸다. 또한 《行事抄》라고도 불렸다.⁶⁰⁾

도선은 자장의 재당 유학시절(《삼국유사》에 의하면 자장은 636년에 중국에 도착했다)에 南山抄라는 자신의 주석서를 완성했고, 두 명 모두 종남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호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

58) *Encyclopaedia of Buddhism*, Sri Lanka: Gov't. Printer(Continuing series).

59) Tso Sze-bong, "The Transformation of Buddhist Vinaya in China", pp.30~33. 비구니들을 위한 四分律의 英譯은, Karma Lekshe Tsomo, *Sisters in Solitude: Two Traditions of Buddhist Monastic Ethics for Wome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inese Dharmagupta and the Tibetan Mulasarvastivada Bhiksuni Pratimoksa Sutra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 Akira Hirakawa, *Monastic Discipline for the Buddhist Nuns*, Patna: K. P. Jayaswal Institute, 1982. 중국에서 유행한 각종 계율서들의 간단한 묘사는 S. C. Banerjee, "The Vinaya Texts in China", *Indian Historical Quarterly*, 25-2, 1949, p.9794.

60) Tso Sze-bong, "The Transformation of Buddhist Vinaya in China", pp.52~53 ; 이만, <자장의 근본 교학 사상> 《불교문화연구》 2, 1991, 42~43쪽.

다. 도선이 쓴 자장의 전기에는 서로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으나, 자장이 四分律羯磨私記를 썼고, 그와 같이 귀국한 원성도 四分律에 대한 초고를 썼기 때문에, 자장이 도선의 주석서를 가지고 귀국해서 그것을 참고로 하여 신라의 종교 관행을 정했음 가능성이 있다. 도선이 쓴 <자장전>에는, 자장이 신라 僧尼의 五部에 舊學을 첨가 시켰다고 한다. 도선은 法礪의 四分律疏(舊疏)를 의미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이어받고 제창한 636년의 南山抄를 가리키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Ⅶ. 불교·유교 가치의 혼합

위의 원광과 자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그들은 유교와 불교 가치의 혼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대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중국 불교와 다른 이념과 제도들을 서로 연관된 사상 체계로 간주하였으며 ‘중국 문화의 일괄 요소’로 생각했다. 이른 시기의 한국 승려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문화환경 속에서 사는 것을 계기로, 중국문화가 불교와 유교의 혼합이라는 그들의 통합된 시각은, 불교승단 교육에 대한 유교적 영향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 승려들의 전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불교사원에서 유교와 불교를 두루 훈련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은 중국 문화의 이들 두 필수 요소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승전》에 의하면, 僧敏(467~527)이 僧慧 밑에서 공부할 때 유교의 五經에 대한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道準이라는 승려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는데 그가 낮에는 《禮記》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불경을 가르쳤다고 한다. 義淨도 절에서 6년 동안 유교경전을 습득했다고

한다.⁶¹⁾ 유교 교과과정의 영향은 저명한 중국 불교도들의 저작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고승전》의 저자인 慧皎는 계율의 엄수는 성직자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정직성과 충성심을 기르는 데에는 유교의 예(의식과 예절)를 연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썼다. 義淨은 중국의 불교 세계는, 타인에 대한 올바른 의무와 예절의 원리이고, 군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禮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썼다.⁶²⁾ 義淨이 교단에게 禮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해할만 한데, Patricia Ebrey가 보여주었듯이 禮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유교적 사고에서 최상의 중요성을 가진 개념이고, 인간들 상호간의 교제와 인간 세계와 ‘天’의 세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다.⁶³⁾

이러한 유교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불교교단이 인도에서 특징 지워진 방식을 고쳐서, 불교를 관료적이고 중국 중심적인 체제하에 두려는 국가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⁴⁾ 어렸을 때의 유교 경전 습득과 중국에서 경험한 여타 중국문화 때문에, 원광과 자장은 유교, 불교의 혼합된 가치가 국가의 사회 정치적 필요에 부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귀국하자 유교와 불교의 의제들을 활기차게 추구하고 장려했다. 그들의 정신적인 통솔력 아래, 화랑들에 대한 여러 언급에서 볼 수 있듯이, 신라의 귀족층이 유교와 불교를 서로 모순적이고 배타적인 사상체계로 인식하지 않았다. 경주 근처 석총사에서

61) Tso Sze-bong, "The Transformation of Buddhist Vinaya in China", pp.205~206.

62) Tso Sze-bong, 위의 논문, p.119.

63) Patricia Ebrey, *Confucianism and Family Rituals in Imperial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14.

64) Eric Zürcher, "Buddhism and Education in the Tang Times", *Neo-Confucian Education: The Formative Stage*, edited by Theodore de Bary and John W. Jaf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p.19~56.

발견된 진평왕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금석문에는 두 명의 화랑 청년들의 서약을 기록하고 있다: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서약하여 쓴다. 하늘에 맹서하건대 지금으로부터 3년 뒤까지 충성의 도리를 지키며 잘못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천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지면 가히 행할 것을 받아들임을 맹서한다. 또 별도로 지난 신미년 7월 22일에 하나의 서약을 했는데, 3년 이내에 《詩經》·《尙書》·《禮記》·《春秋傳》을 차례로 습득하기로 하였다.⁶⁵⁾

화랑들에게 있어서 군주에 대한 충성과 친구들 사이의 믿음에 대한 강조는 여타 일화들에서도 명백하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사다함은 무관랑과 영원한 우정을 맺었는데, 무관랑이 죽자 사다함은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다함도 죽음으로써 그의 친구를 따랐다고 한다.⁶⁶⁾ 백제군이 관창을 죽이고 잘린 머리를 말에 묶어서 신라 진영에 보내자, 그의 부친은, “그가 大義를 위해 죽었으니,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VIII. 맺음말

진평왕,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재위 기간은 왕권과 귀족세력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진다. 왕권의 계속된 강화는 귀족들의 전통적인 특권에 대한 침식을 의미했다. 이 시대의 신라 왕실은 불교 승려들의 학식과 명성을 이용하여, 국가의 세속적

65) 壬申誓記石.

66) 《삼국사기》 권44, 사다함전.

인 목표를 달성하고, 왕권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도록 국민의식을 개조했다. 원광의 세속오계와 자장의 황룡사구층탑 건립에 있어서 역할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원광의 세속오계를 불교의 五戒 및 유교의 五倫과 비교하여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신라인들의 현실적 필요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장이 불교적인 상징, 즉 ‘刹帝利’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을 선덕여왕을 신격화한 것을 통하여 명백히 볼 수 있다.

원광과 자장은 신라의 전통 신앙인 무교의 의미와 그 한계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된 불교와 유교의 정치이념과 사회운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6세기 신라사회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續高僧傳》, 《新唐書》, 《日本書紀》, 《장아 함경》.
- 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 김영미, <자장의 불국토 사상> 《한국사시민강좌》 10, 1992.
- 김철준, <민족사의 교훈> 《한국문화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남동신,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 치국책> 《한국사연구》 76, 1992.
- 신종원, <자장과 중고시대 사회의 사상적 과제>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 안계현, <신라인의 세속오계와 국가관—신라문화의 특징 이해를 위한 서설> 《한국사상》 3, 1960.
- 안계현, <자장의 불교 사상> 《한국불교사상사연구》, 동화출판공사, 1982.
- 이기백, 《신라정치사연구》, 일조각, 1979.
- 이기백, <원광과 그의 사상> 《신라시대의 국가불교와 유교》, 일조각, 1978.
- 이기영, <신라 불교의 철학적 전개> 《한국불교연구》, 한국불교연구원, 1982.
- 이만, <자장의 근본 교학 사상> 《불교문화연구》 2, 1991.
- 이병도, 《한국사대관》, 보문각, 1955.
- 정병조, <문수보살의 연구>, 한국불교연구원, 1989
- 정병조, <원광의 보살계 사상>, 《한국고대사에 있어서의 인간과 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정중환, <비담염종난의 원인고> 《동아논총》 14, 동아대학교, 1977.
- 주보돈, <신라 중고의 지방통치조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23, 1979.
- 김종명, "Buddhist Rituals in Medieval Korea(918-1392): Their Ideological Background and Historical Mean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94.
- 김종명, "Chajang and 'Buddhism as a Protector of the Nation': A Reconsideration", Religions in Traditional Korea, edited by Henrik H. Sorensen, Copenhagen: The Seminar for Buddhist Studies, 1995.

- Craig Reynolds, "The Buddhist Monkhood in Nineteenth Century Thailand",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Cornell University, 1972.
- H. Kulke, "Ksatriyaisation and Social Change: A Study in Orissa Setting", Aspects of Changing India: Studies on Honour of Professor G. S. Ghurye, edited by S. D. Pillai, Bombay: Popular Prakashan, 1976.
- Craig Reynolds, "The Buddhist Monkhood in Nineteenth Century Thailand",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Cornell University, 1972.
- David Beetham, *The Legitimation of Power*,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91.
- Eric Zürcher, "Buddhism and Education in the T'ang Times", *Neo-Confucian Education: The Formative Stage*, edited by Theodore de Bary and John W. Jaf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H. L. Seneviratne, *Rituals of the Kandyian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Herbert Durt, "The Meaning of Archaeology in Ancient Buddhism-Notes on Stupas of Asoka and the Worship of the "Buddhas of the Past" According to Three Stories in the Samguk Yusa" 《불교와 제과학: 동국대학교개교 60기념논총》, 1987.
- Jean Baptise Pallegoix, *Description du Royaume Thai ou Siam*, Paris, 1854.
- John Jamieson, <The Samguk sagi and the Unification Wars>,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69.
- Joseph Wong(Huang, Yuch-se), "The Korean Wars and East Asia in the Seventh Century",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호주국립대학교, Canberra, 1984.
- Karma Lekshe Tsomo, *Sisters in Solitude: Two Traditions of Buddhist Monastic Ethics for Wome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inese Dharmagupta and the Tibetan Mulasarvastivada Bhiksuni Pratimoksa Sutra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Akira Hirakawa, *Monastic Discipline for the Buddhist Nuns*, Patna: K. P. Jayaswal Institute, 1982.
- Kyoko Motomochi Nakamura, *Miraculous Stories from the Japanese Buddhist Tradition: The Nihon ryoiki of the Monk Kyokai*,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Liu Tsun-Yan, *New Excursions from the Hall of Harmonious Wind*, Leiden: E.J. Brill, 1984.
- Pan Yihong, *Son of Heaven and Heavenly Qaghan: Sui-Tang China and its Neighbors*, Bellingham: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1997.
- Pankaj Mohan, "The Roles of Monks Won'gwang and Chajang in the Formation of Early Silla Buddhism" In *Korean Buddhism in Practice*", edited by Robert E. Buswell, J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Patricia Ebrey, 《Confucianism and Family Rituals in Imperial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 R. A. L. Gunawardana, *Robe and Plough: Monasticism and Economic Interest in Early Medieval Sri Lanka*,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79.
- Raoul Birnbaum, "Secret Halls of the Mountain Lords: The Caves of Wu-t'ai Shan", *Cahiers d'Extreme-Asie*, 5, 1989-1990.
- Raoul Birnbaum, "The Manifestation of a Monastery: Shen-ying's Experiences on Mount Wu-t'ai in Tang Context",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6, 1986.
- Raoul Birnbaum, "Thoughts on T'ang Buddhist Mountain Traditions and Their Context", *T'ang Studies* 2, 1984.
- Raoul Birnbaum, *Studies on the Mysteries of Manjusi: A Group of East Asian Mandalas and their Traditional Symbolism*,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Monograph, no.2.
- Richard Gombrich, "The Significance of Former Buddhas in the Theravadin Tradition", *Buddhist Studies in Honour of Walpola Rahula*, edited by Somaratna Balasooriya et al., London: Gordon Fraser, 1980.
- Robert E. Gimello, "Chang Shang-ying on Wu-t'ai Shan", *Pilgrims and Sacred Sites in China*, edited by Susan Naquin and Chun-fang Yu,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 S. Sinha, "State-Formation and Rajput Myth in Tribal Central India", *Man in India*, 42-1, 1962.
- S.. C. Banerjee, "The Vinaya Texts in China", *Indian Historical Quarterly*, 25-2, 1949.
- Tso Sze-bong, "The Transformation of Buddhist Vinaya in China", *미간행 박사 학위 논문*,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1982.

ABSTRACT

The buddhist legitimation of Silla kingship
—Focusing on the roles of monks Wongwang and
Chajang in Silla politics—

Pankaj Mohan

Wongwang and Chajang are doubtless two great Silla monks of early 7th Century who established mutually empowering relationship between Buddhism and royalty. Wongwang's Five Secular Precepts and Chajang's role in construction of the Nine-story stupa illustrate this point. Chajang's political use of Buddhist rhetoric is also evident in his apotheosis of Queen Sondok as a ksatriya, a caste of valour and virtue in Buddhist literature.

Chajang also proclaimed Silla as a Buddhist realm and an abode of Past Buddhas to give spiritual comfort to his countrymen and to instil in their mind confidence and a sense of pride.

Wongwang and Chajang, the two representative monks of early Silla almost erased the dividing line between the Confucian norms of statecraft and the Buddhist path of salv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se two Silla monks imported the religious and cultural ideas and institutions from China selectively and judiciously, and adapted their contents to suit the local needs and circumstances.

Key words : Chajang, Wongwang, royalty, Five Secular Commandments, Sangha
Administrative Structure, Nine-Story Pagoda of the Hwangnyong
Temple, Buddha land

논문 투고일 : 2006. 10. 5

심사 완료일 : 2007. 2. 20